



봉화군 수의사회, 장학기금 500만 원 기탁
봉화군 수의사회는 봉화군청을 방문,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기탁한 수의사회 하중성 회장(내성동물병원), 회원 이재석(영광동물병원), 하중엽(하수의과병원), 김서필(김서필동물병원)은 예찰지역 내 동물 진료, 전염병 예방 및 예방치료, 검진 등 지역의 가족 질병 예방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사진=봉화군제공)

인구절벽 大悲劇...경북도내 학교마저 집어삼켰다

(대비극)

경북 41년간 784개 학교 없어져 이 기간 176개 학교 분교 개편

인구절벽이 학교를 집어삼켰다.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농어촌이나 산골마을의 학교가 대부분이다. 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복식 학급 제도란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에서 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다. 실제 경북에서 1982년 이후 41년간 784개의 학교가 사라졌다. 이 기간 176개의 학교가 분교로 개편됐다. 지난 41년간 초등학교 677개, 중학교 73개, 고등학교 34개 등 784개가 폐지됐다. 최근 10여년간 폐지된 학교는 2012년과 2013년 각 14개, 2014년 9개, 2015년 7개, 2016년 15개에서 2017년 24개로 정점을 찍었다.

2018년 11개, 2019년 10개, 2020년 4개, 2021년 3개, 2022년 3개, 지난해 2개로 최근 4년간 1자리 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6개로 지난해의 3배로 급증하게 됐다. 올해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학교는 경주 의곡초 일부 분교(학생수 4명), 김천 봉계초 태화분교(5명), 성주 초전초 봉소분교(6명), 봉화 소천초 임기분교(3명), 울진 기성초 사동분교(5명), 울릉 천부초 현포분교(2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울진 기성초 구산분교와 영덕 축산향초 경정분교가 폐교됐다. 분교로 개편된 곳은 2016년 6개, 2017년 4개, 2018년 1개 이후 6년간 없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규모 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교육 과정 운영, 작은 학교 살리기, 작은 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등으로 학생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단재정일정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9~1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국외선진학교 방문 및 2024 CES 행사'를 참관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9일 오전 구청장실에서 PBS중앙방송 후원물품 기탁식에 참석한다.

불체포특권 포기 무서워 TK 예비후보 잇단 포기 서약

한동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서약 후보만 총선 공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후보만 총선에서 공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소속 TK(대구·경북) 예비후보들의 서약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8일 TK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우성진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64)는 지난 4일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선민후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기 위해 서약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남구에 출마하는 도태우 예비후보(54)도 최



근 "국회의원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지역구의 이영규 예비후보(60)와 강사빈 예비후보(22)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화(56)·성은경(57) 서구 예비후보(56)와 김희창 달서구를 예비후보(40)도 "당선되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경북에서는 이상휘 포항 남구·울릉 예비후보(61)와 이재원 포항 북구 예비후보(54)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이태식 구미시갑 예비후보(63), 최우영(43)·강명구(47) 구미시를 예비후보, 이완영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66), 조지연 경산시 예비후보(37) 등도 동참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을 발표하며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분들만 공천을 할 것"이라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에 어기는 분들은 출당 등 강력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홍준표 "이재명 편? 글썄올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이른바 '틀류버'(틀니와 유튜브 브롤 합친 말로 극우 유튜브를 일컫는 조어)와 일부 보수층을 비판하며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를 예우해 주자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 편들었다"고 비난하는 틀류버들이나 일부 우파 칼럼들을 보면, 일부 우파 진영이 어떻게까지 외골수로 나가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시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하는 과정을 놓고 특히 등 논란이 일자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가 참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진영논리로 특혜시비를 하는 것은 유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홍시장의 발언을 놓고 일부 보수층이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편들었다"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홍시장은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때는 좌파진영과함께 심해박근혜를 끌어내리더니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바로잡혔다. 그때 박근혜를 위한 변명을 단 한마디라고 한 적이 없다"고 따지며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탄핵대신 때 시종일관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우파는 비겁하고 좌파는 뻔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그만 자중들하라. 부끄러움을 모르면 좌파와 똑같아진다"고 지적했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예산절감 행정력 총동원

경영양군은 예산절감 등을 위해 '건설공사 합동 설계단'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합동설계단은 건설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시·군·시립공사 관련 시설직 공무원 26명으로 구성됐다.

도시개발사업 및 농업 기반사업, 주민 숙원사업, 도로 및 교량사업, 상수도, 하수도 및 관광개발사업, 하천사업 등 6개 분야로 편성해 내달 29일까지 총 444건(240억 원)의 사업을 합동설계한다.

군은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5월까지 소규모 사업들을 완료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일제히 공사를 발주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합동설계단 운영이 시설사업에 대한 실무자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윤동 기자

힘차게 20 도약하는 24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미래가 있는 봉화!

지난 한 해 동안 봉화군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미래가 있는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 관광자원 안내와 문화해설 담당 실무 종사자의 근무복을 개선하고 관광 접점에서 해외 관광객 환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한복근무복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진흥원은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복 근무복 개발 공모 사업'을 전국에 공모해 전통 한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과 관광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우수한 한복 근무복을 선정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기획자가 문화재단 이사장?...논란

시장 출마때부터 현재까지 복잡함 시, 문화 관련 국비 확보 활약 기대

이강덕 포항시장 '기획자'로 알려진 이상모 전 이병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3년여 간 공석이던 포항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보는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문화재단은 법정문화 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상모 전 경북도 동해안정책자문관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문화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27일부터 15일 간 대표이사를 공모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자 10명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이사장에게 추천했다.

정기이사회에서 이상모 후보를 대표이사로 심의 의결했다.

이 대표이사는 이날 포항문화재단 이사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들어갔다.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해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 향유 증진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고, 보수는 3급 공무원 수준이며 관용차도 지급된다.

시는 2021년 1월 초대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3년 간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현 이강덕 시장을 포항시장에 출마하라고 최초로 권유한 이상모 전 보좌관을 새 대표이사로 임용, 보은인사라는 시비에 휘말렸다.

신인 이 대표는 이강덕 시장과 대구 모 고교 동문으로 오래전부터 막연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막전막후에서 이강덕 시장을 후원해 온 이 시장의 대표적 복심으로 지목되는

인사다.

이 시장이 3선 막판에 측근 인사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모 대표는 이병서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 보좌관인 이상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 보좌관인 이상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동국대학교 인재교육원 교수와 독도재단 대표이사, 사단법인 도시전략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경상북도 동해안정책자문관으로 국비확보에 대한 자문도 담당했다.

해양문화와 지역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라는 프로필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포항야구장 건설, 동빈내항 복원, 스틸아트페스티벌 국비 최초 확보,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건립

등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항의 역사문화 가이드북인 '공간·시간·인간'도 발행한 바 있다.

시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며 정부 정책을 알고 있어 문화 관련 사업 추진 시 국비확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시장은 "포항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대표이사가 선임된 만큼 앞으로 포항시와 협력해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모 대표이사는 "문화로 행복한, 문화로 자유로운, 문화로 잘사는 환동해 문화중심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창명 기자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 범시민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포스텍 의대 신설 서명운동에 30만 5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텍 의대 신설 촉구 서명...목표 초과 30.5만 명 동참

목표치 20만 150% 초과 달성 영덕 등 재경 향우회도 동참

포항시는 지방 의료 붕괴를 막고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 서명 운동이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1월 27일에 열린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 범시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서명 운동에 30만 5803 명이 동참해 당초 목표인 20만 명을 153%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서명운동은 영하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고, 보름 만에 기존 목표치였던 20만 명

을 조기 달성했다.

시는 서명운동 기간 동안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교, 지역 사회단체, 지역기업, 농업·수산업, 문화예술 단체 등 시민사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스페이스워크와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등 주요 거점 지역 뿐만 아니라 KTX 역사와 시외버스터미널에도 서명부스를 설치해 포스텍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각종 연말 행사에서도 결의 퍼포먼스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재경·재대구 등 포항향우회는 물론 경주·울진·영덕·울릉 등 도내 시군도 적극 동참해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동해안 전 지역민들이 뜻을 모았다.

시는 이번 서명운동이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

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목소리를 담아 적절한 시점에서 명목에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공식 서명운동은 마무리했지만 기관·단체의 각종 행사 등에서 자발적 차원의 서명운동은 지속해 시민들의 염원을 계속해 결합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모든 국민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30만 명 이상 모인 시민의 간절함을 정부에 잘 전달해 포스텍 의대를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창명 기자

대구 기업 41% "2025년에 경기 반등"...

대구상의, 경제·경영 전망 조사 정부 기업 애로 확실히 풀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흥기 폐쇄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하는 과정을 놓고 특히 논란이 이는 가운데 대구 의사단체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대구시의사회는 8일 성명에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응급 의료전달 체계를 붕괴하는 특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발생한 이 대표 흥기 습격은 명백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로, 이 대표의 폐유를 기원하지만 헬기 특혜 이송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고 지역 의료계를 유린시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센터는 전국 최고의 외상치료 전문성을 자랑하는 병원"이라며 "응급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의료진을 뒤로 하고 119 헬기를 불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부산대병원 필수 의료진에 대한 모멸감을 주는 행동일 뿐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의사회는 "민주당과 이 대표에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이 단독 입안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한 법안도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정영환 공관위원장 의결...

중구 기초의원 한곳 무공천 10일까지 공관위 구성 방침

국민의힘이 8일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의결했다. 또한 오는 31일 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대구 중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중 한 곳은 무공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정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의결했다고 박정화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5일 정 교수를 국민의원 공관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정영환 위원장과 함께 공관위원 인선을 1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인 4월

10일의 90일 전인 1월10일까지는 공관위를 꾸려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진 적은 없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또 1월31일 실시하는 대구 중구의회 기초의원 보궐선거(중구가선거구)에 한 명의 후보만 내기로 했다. 이 지역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이면에 두 명의 의원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귀책사유로 발생한 선거구에는 박지웅 국민의힘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천하고 의결했다"며 "나머지 선거구는 무공천 지역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그전부터 우리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를 보면) 무공천 (방침을) 이어왔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때문에 우리 당이 많은 후폭풍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무공천을 한 것은) 깊이 생각하고 있는 증거라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미경 기자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북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벨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 산업용 웹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파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남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한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강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례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계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미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미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아내 밀쳐 사망케한 남편 “머리채 잡혀, 정당방위”

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아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로부터 응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섬김의 보훈 정책 경북, 호국 성지로”

도, 올해 호국정책 강화 나서 호국메모리얼 파크 조성 등도

경북도가 올해 호국정책을 강화한다. 경북은 전국에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했고, 6·25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수많은 장병이 헌신한 호국보훈의 역사적 숨결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도는 지난해 1~7월, 백선엽 장군, 이승만·트루먼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호국영웅 동상 건립을 추진했다.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은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우경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를 고문으로 한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2022년 12월 구성돼 총사업비 5.8억 원(국비 1.5, 도비 1, 성금 3.3억 원)으로 제작·설치됐다.

국민성금은 모금 2개월 만에 4335명(1인당 1만원 이상)이 참여해 목표액(2.5억)을 달성할 정도로 동상 제작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열기는 뜨거웠다.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은 2017년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민간이 주체가 돼 동상건립 추진모임이 구성됐다.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국내 최고 조각가인 김영원 작가에게 의뢰해 제작됐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의지를 후손들이 알도록 하고 좌우를 떠나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지로 대한민국 호국의 성지인 칠곡군에 안착하게 됐다.

그 결과 백선엽 장군과 이승만·트루먼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진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의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5만3000여 명이 다녀간 전 8월 1만2000여 명과 비교해 4배가 넘었다.

이 후 9월 6만5000여 명, 11월 7만5000여 명

등으로 방문객 수는 계속 늘었다. 도는 이에 힘입어 다부동전적기념관 일대에 다부동 호국메모리얼 파크를 만든다.

도는 백선엽 장군 기념관, 다부동 전투스프츠센터, 피난 땅굴 등 추모시설에 놀이·체험 시설을 추가하고 유학산 일대에는 유해 발굴 지점을 정비하고 야외 체험 공간(방공호·서바이벌 게임장), 호국 돌레길 등산로 등을 조성한다.

국가보훈부의 ‘낙동강 호국벨트화 사업 확대 계획’에 발맞춰 철곡·근위·영진·경주·포항·영덕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방어선 주요 격전지에 각각 설치돼 운영 중인 호국보훈시설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호국보훈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경북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강화방안’도 모색한다.

도는 2022년 1월 청송 향일의병기념공원의 관리·운영권을, 지난해 7월에는 경주 통일전의 관리·운영권을 이관받아 이들 시설의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 나아가 경주 통일전과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청송 향일의병기념공원 등 도내 호국보훈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가칭)호국보훈재단을 설립해 국가 현충시설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낙동강계 계평화문화대축전, KBS 열린음악회, 낙동강 평화자전거대행진, 각종 보훈기념일 기념식 등 다양한 보훈 행사를 열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올해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광복회 행사용 의복, 장례의전선양단 차량 등을 지원하고, 해외참전유공자 초청 학술대회 등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호국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섬김의 호국보훈 정책을 추진해 경북을 대한민국 호국의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성서사업소, 무재해 9배수 달성

무재해 9배수 목표달성 사고 제로 사업장 인증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성서사업소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 결과 무재해 9배수(2565일)를 달성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성서사업소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무재해 운동을 개시했다. 지난해 12월 1일까지 단 한 건의 산업재해 없

이 무재해 2565일을 달성,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심사를 거쳐 ‘무재해 9배수 목표달성’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 같이 참여해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해 무재해 목표 시간을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간 성서사업소는 무재해 사업장 목표 달성을 위해 매월 정기 안전보건교육, 안전캠페인 실

시, 재난대비 모의훈련 실시 및 안전 전문가관과의 정기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채순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성서사업소장은 “향후에도 무재해 9배수 달성에 이어 10배수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사업장 안전관리와 다양한 안전관리기법을 발굴하겠다”며,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경북교육청, 학교 교육과정 준비 열기 용솟음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초등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8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사·전문직원 총 490명을 대상으로 ‘경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구호 아래 학생의 주도성과 삶이 연계된 배움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결정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삶의 힘을 키우는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도움 자료’ 2종의 활용 방

안 안내 △2024학년도 질문이 넘치는 교실 정책 안내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수업 설계 △새 학년 교육계획 준비 주간과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2024학년도 질문이 넘치는 교실’ 정책 안내와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질문 워크북과 질문 공책 활용 실습 연수를 통해 질문에서 출발, 개념에 이르는 경북형 수업의 표준을 완성하고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제공된 자료는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 워크북과 공책 활용 실습 연수 또한 학생들과 함께 질문으로 설레고 배우는 수업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안전해요! 안심해요! 대구 인성교육 체험학습

대구시교육청, 2024 인성교육 체험학습장 사전안전영향평가

대구교육청이 ‘2024 인성교육 체험학습장’의 사전안전영향평가를 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인성교육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8-19일 까지 인성교육 체험학습의 안전성을 확보, 체험 기관(장소)별 여건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사전안전영향평가는 지역 연계 체험학습 기관 13곳, 문화탐방지 8곳, 인성교육 체험센터 21곳 등 총 42곳을 대상으로. 관내 교사 16명으로 구성된 안전영향평가단이 직접 방문, 진행한다. 시 교육청은 △체험시설 현황 △체험시설 안전성 △위생 및 방역 △교육프로그램 및 코스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체험학습에 필요한 시설 확보 여부, 화재 등 위험시설의 통제 가능 여부, 활동공간의 위생 상태, 교육 프로그램 코스의 적절성 등 총 26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후에는 대상 기관과 평가결과 피드백 및 협의를 통해 학생 안전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황태용 기자

대구행복기숙사 입소생 모집 주거·관리비 포함 월 24만원

대학생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구행복기숙사’가 올해 1학기 입소생을 모집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행복기숙사는 대학생들이 입주해 공동으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주거비는 관리비를 포함해 월 24만원으로, 기숙사 소재지인 중구 평균 월세(42만4000원)보다 43% 저렴한 수준이다.

중구 서성로 옛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터에 시비 88억원, 국비 50억원, 주택도시보증기금 310억원 등 448억원을 들여 조성된 행복기숙사는 연면적 2만5452㎡, 지하 2층, 지상 14층, 503실, 수용인원 1000명 규모다.

1층에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빌려주는 ‘희망옷장’,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센터’가 들어섰으며, 2층에는 멀티스튜디오, 강의실, 청년커뮤니티 공간을 갖췄다.

청년층 외에도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조성됐다.

행복기숙사는 도심에 위치해 도시철도 등 통학이 편리하고, 안전인식시스템이 설치돼 대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다니는 39세 이하 재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입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숙사 누리집을 통해 22일까지 받는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 은 “대구행복기숙사는 전국 최초로 기숙사 시설과 공공시설을 함께 건립해 다양한 교육, 취·창업,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행복기숙사가 청년들이 모여드는 청년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서울 대학생 8명, 포항서 식중독 의심 증세

해산물 구워 먹고 구토·설사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나서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단체로 포항에 왔다가 해산물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7일 오전 포항시 북구청 하변 한 펜션에 숙박했던 서울지역 대학생 14명

중 8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학생들은 지난 5일 오후 해산물을 먹은 뒤 6일 오후 남은 해산물을 다시 구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지역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은 뒤 모두 귀가했다.

포항시북구보건소는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에 가검물 검사를 의뢰하고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 중이다. 정창명 기자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희성산업(주)대표 이형주(우)가 최근 진량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을 기탁하며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형주 대표는 "작은 정성으로 지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

겠다"고 했다. 이재열 진량읍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코스피 (-7.62p)	코스닥 (-1.41p)
2,570.46	876.92
엔화 (+2.18p)	유가 (-0.18p)
911.62	1,571.84
환율 (+0.60%)	금(金) (-0.20)
1,316.60	2,049.80

www.dgy.co.kr

대구 부동산 전문가... 집마련 올 하반기 최적기

대구 인근 추진되는 '대구모' 개발지구 중 투자 유망한 곳 수성구 연호지구 59.8% 많아

대구지역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올해 하반기를 내 집 마련의 적기로 전망했으며, 부동산 반등 시기로는 절반 이상이 내년을 예측했다.

8일 대구지역 부동산전문 광고홍보대행사인 에드메이저에 따르면 최근 대구 부동산 전문가 11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경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적정시기'로 41.1%가 '올해 하반기'를 꼽았다.

'올해 상반기'(25.9%), '2025년'(20.5%), '2026년'(10.7%)이 뒤를 이었다.

올해 부동산경기 전망은 '매우 좋지 않다' 47.3%, '좋지 않다' 33%로 부정적인 견해가 80.3%에 달한 반면 '매우 좋다'(0.9%)와 '약간 좋다'(6.3%) 등 긍정적인 견해는 7.2%에 불과했다.

대구 부동산의 반등 시기로는 절반이 넘는 56.3%가 2025년을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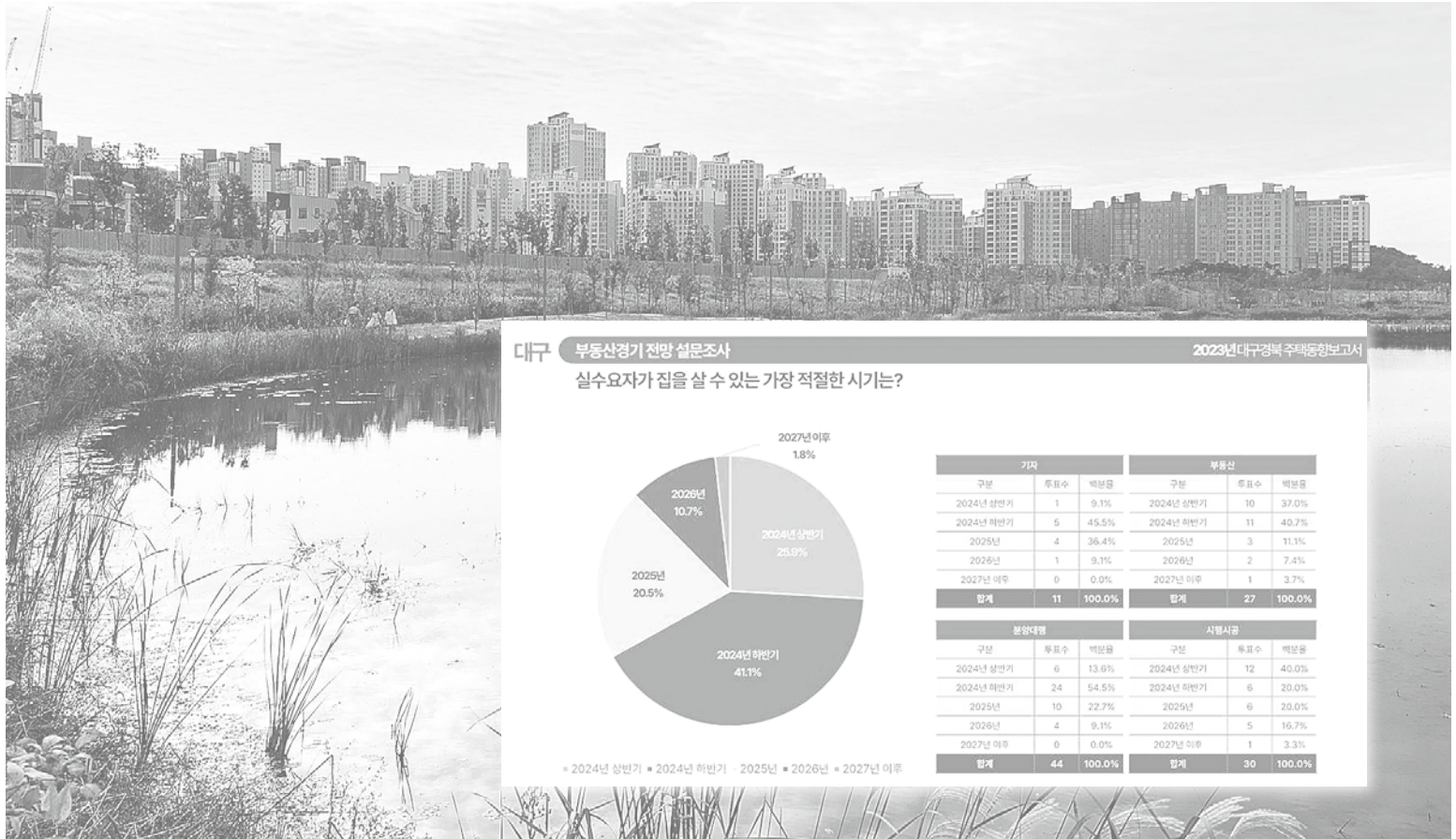
'2025년 상반기'가 30.4%로 가장 많았다. '2025년 하반기'(25.9%), '2024년 하반기'(18.8%), '2026년 상반기'(10.7%), '2026년 하반기'(7.1%), '2027년 이후'(5.4%), '2024년 상반기'(1.8%) 순이었다.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의 가장 큰 이유로는 '공급물량(40.2%)'과 '입주물량(25%)', '금리인상(20.5%)', '부동산 규제(8%)'를, 부동산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입주 및 미분양 물량(36.6%)', '대출 및 부동산규제(27.7%)', '금리인상(26.8%)', '실물경기(4.5%)'를 꼽았다.

침체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부동산 금리인하(60.7%)', '다주택자 제약해제(25.9%)', '분양촉진지구 지정(8.9%)'이 꼽혔다.

대구와 인근에 추진되는 대구모 개발지구 중 가장 투자가 유망한 곳으로는 '수성구 연호지구'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 K2부지'(22.3%), '수성구 대공원지구(8.9%)', '동구 펜타힐즈(5.4%)', '경산 대입지구(0.9%)'가 뒤를 이었다.

조여은 기자



DGB금융그룹, TCFD 보고서 발간

2022년 금융배출량... 전년 대비 약 5만t 감축



DGB금융그룹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탄소중립 전략과 이행현황을 담은 TCFD 보고서를 발간했다.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는 2015년 G20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만든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관리지표, 감축목표 등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DGB금융그룹은 2018년 TCFD 지지 선언 이후 매년 TCFD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2년 그룹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수립해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 이행하고 있다.

감축목표는 그룹의 자체 배출량뿐만 아니라 금융배출량도 포함한다.

금융배출량은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방법론을 기반으로 산정했다.

2022년 금융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5만t 감축됐다.

금융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DGB금융그룹은 자산 부문별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금융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배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탄소배출 감축현황을 파악하고 목표 수립을 권장한 점은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금융배출량을 줄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DGB금융그룹은 향후 고객 관여활동(Engagement), 친환경 부동산 여신, 신재생 에너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그룹의 Net-zero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

지속가능금융 산업정책,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ESG 통합정책에 대한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수립해 금융기관으로서 지속가능금융을 통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그룹의 자체 배출량 감축은 물론 고객의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 기업 41% "2025년에 경기 반등"...

대구상의, 경제·경영 전망 조사 정부 기업 애로 확실히 풀어야

대구지역 기업 40%가 2025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경제·경영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수출과 투자까지 난해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많았다.

경제회복 시기는 응답업체의 41%가 '2025년'을 꼽았고 '올 하반기'(35.2%), '이미 회복 국면에 진입(0.5%)'이 뒤를 이었다.

올해 기본 경영전략으로 제조업의 66%, 건설

업의 49.4%가 '안정 전략'을 택했으며, '성장 전략'은 제조업 33.1%, 건설업 6%에 그쳤다.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금리, 유가 등 거시경제 지표 불안정으로 올해 경영전략을 '성장'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활동의 리스크로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을 가장 우려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고금리 추세에 따른 자금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 강화, 신산업 진출을 위한 제도 걸림돌 해소 등 정부가 기업 애로를 확실히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대구·경북 상장법인 시가총액 100조원대

대구·경북 상장법인 119곳 시가총액 2개월 연속 100조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2개월 연속 100조원대를 유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8일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 119개사의 시가총액이 137조7970억원으로 전월 대비 9.84%(12조3473억원) 증가했다.

전월 회복된 100조원대가 2개월 연속 이어졌다. 전기전자, 전문기술, 철강금속, IT부품 업종이 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지역 상장법인의 12월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상장법인의 5.39%로 전월보다 0.24%p 증가했다.

코스피시장 상장법인 43개사의 시가총액은 104조1488억원으로 전월 대비 8.77%(8조3940억원) 늘었다. 법인별로는 에코프로머티(3조6566억원), 포스코퓨처엠(2조6725억원), 포스코홀딩스(1조3954억원) 순이었다.

정창명 기자

티웨이항공, 대한민국 항공대전 프로모션...

웨이항공은 8~21일까지 티웨이항공 누리집 및 모바일 앱(웨이)에서 국제선 노선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항공대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특가 프로모션은 국제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탑승기간은 일부기간을 제외하고는 3월31일까지다.

모션은 국제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탑승기간은 일부기간을 제외하고는 3월31일까지다. '전 국민 해외여행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신년 맞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합리적인 운임의 왕복 항공편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오픈과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14일로 내 사용할 수 있다.

김성용 기자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포항 울진 청도 칠곡

“칠곡군보건소와 금연실천 하세요”



칠곡군보건소는 새해 금연을 결심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클리닉은 칠곡군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되며 △1 맞춤형 상담△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질 무료 제공△니코틴의존도 평가△비대면상담△금연성공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이 구동성(이동금연클리닉, 건강한 구강관리 동료들이! 함께 성공하자)도 운영한다.

이구동성은 금연희망자 5인이 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금연클리닉 및 구강검진, 혈압·혈당관리, 금연침시술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울진군 '신년음악회 필하모니 앙상블' 공연

울진군은 9일 저녁 7시 30분 신년맞이 '필하모니 앙상블' 음악회를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공연 관람 예매는 인터넷과 전화로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전화예매(☎054-789-5484)만 진행 중이다.

이번에 울진을 방문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1842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Karl Boehm과 Herbert von Karajan 등 전설적인 거장들과 다수 협연한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엄격한 주법과 전통적인 음색을 그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 세계 90여 개국, 5천만 명이 시청하는 빈 필하모니 New Year's Concert의 현역 핵심단원 13인이 내한해 펼치는 최정상 신년 음악회로 요한 슈트라우스 왈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를 관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경수 기자

정희용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신산업 발굴매진

윤재옥 원내대표 “고령 성주 칠곡 이끌 정치인”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칠곡문화회관에서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고령·성주·칠곡)의 의정보고회가 토론회 형식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이날 행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인선 원내부대표, 김재욱 칠곡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해 지역 의원, 칠성고



지역인사들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고령 성주 칠곡에서 모처럼 좋은 정치인이 나타났다”며 “대구에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인구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등 여러 숙원사업을 앞으로 해결할 사람이다”며 정희용을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저 같은 3선 의원 정도 되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며 “미래의 우리 지역을 위한 정말 좋은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고 지역 주민들께 함께 해달라 당부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일 신입 원내대변인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대통령특사단, COP28 의원

회의 국회 대표단 등으로 활약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국회에서 신뢰받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중앙정치와 더불어 칠곡군 농기계 관련 사업, 성주군 특화작목 육성 관련 사업 고도화, 고령군 대가야 중심 문화관광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및 신산업 발굴에도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지역 단체장은 “TK지역은 4월 총선에서 대폭 몰락이 예상된다”며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의원 공천에 성공할지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미경 기자

김하수 청도군수, “평생학습은 시대정신”

세계적 유명한 평생학습 성지 일본 가케가와시 방문

김하수 청도군수는 새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를 방문했다. 일본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가케가와시는 1979년 세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도시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농현상 가속화로 가케가와가 시골의 소도시로 쇠퇴하자 당시 시장인 신무라 준이치(榊村純一)는 지역을 살릴 수단이 평생학습이라고 판단해 평생교육을 주민운동으

로 승화시켜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냈다.

그 후 꾸준히 주민 교육을 장려해 가케가와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생학습의 성지로 손꼽히고 있다.

김하수 군수는 가케가와시청, 시의회를 방문해 시장, 시의장, 간부들과 함께 가케가와 평생학습 노하우를 청도군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평생학습 정신 운동의 발상지 격인 일본보덕사(日本報徳社)와 시민의 자발적 운동과 참여

로 이루어 낸 가케가와와 랜드마크 및 관광명소를 견학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평생학습은 중요함을 넘어 시대정신이다”며 “청도를 평생학습행복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성숙된 자긍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행복한 희망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난해 7월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평생학습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의 허브 △농업대전환이라는 3대 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조여은 기자

포항, 하천환경정비사업 첫걸음

포항시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기제부에 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2024년 제1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심의·의결됐다.

환경부가 시행하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하천 제방 정비와 퇴적구간 준설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3억 원이다. 사업은 퇴적토 준설량 1260만㎥, 제방 보강 49.8km로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다.

포항시는 형산강이 지난 2018년 이후 홍수에 보가 매년 발생되는 등 홍수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극한 강우에 의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산강 준설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강덕 시장은 “기후변화가 잦아지고, 자연재난이 강력해지는 시대에 형산강 범람 우려에 대비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린다”며 “포항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재난·재해로부터 시민과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아하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칠곡군, 청렴달력 제작 배포

칠곡군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칠곡군 청렴으로 스며들다”라는 제목의 청렴달력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력은 새로운 한해를 맞아 직원들이 새 마음으로 청렴의지를 다지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했다.

달력에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감질의 판단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청렴 명인 등을 수록했다. 특히 감질피해 신고센터 QR코드를 삽입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해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청렴추진단 구성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명함 및 배지 제작 ▶찾아가는 반부패 청렴 컨설팅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일상속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조미경 기자

북삼라이온스클럽, 칠곡할매래퍼 ‘보람할매연극단’ 지원

칠곡군의 보배 칠곡할매래퍼 보람할매연극단을 응원합니다

북삼라이온스클럽 지준일(56) 회장은 지난 7일 칠곡할매래퍼 그룹 ‘보람할매연극단’을 만나 활동에 필요한 옷과 액세서리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해 달라며 활동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준일 회장은 올해 창단 10주년 맞는 보람할매연극단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나섰다.

2014년 정식으로 창단한 보람할매연극단은 50대부터 80대의 동네 할머니 8명으로 구성됐다.

창단 이전에는 문맹이었던 할머니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배워 연극에 도전해 ‘흥부네 박터졌네’를 선보이며, 경북도 평생학습박람회에서도 연극부분 대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세대교체에 이어 랩에 도전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지 회장은 “강산도 변하는 긴 시간 동안 대를 이

어 활동하며 칠곡군을 알려신 할머니들을 응원한다”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칠곡군이 실버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왕성한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준일 회장은 칠곡군 약목면에서 소음방지 바다매트를 비롯해 일반건축자재, 폴딩박스, 인피니티체어 등을 생산하는 플라스틱 사출업체 <주>밀레니엄인텍을 운영하고 있다.

칠곡경찰서 경찰발전위원장을 맡아 청소년 선도 및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조미경 기자

희망특별시 포항

손에 잡히는 경제 희망특별시 - 푸르고 편리한 환경 희망특별시 - 내 삶이 즐거운 복지 희망특별시-로 더 큰 포항을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축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다변화 3(이차전지·바이오·수소) + 1(철강고도화) ○ 일자리 1,000개 창업, 10,000개 양질 일자리 ○ GRDP 2018년 18조 → 2030년 30조 ○ 관광 1,000만 관광시대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웨이 3대 프로젝트 완성 ✓ 도시재생 3대 재생사업 완료 ✓ 생태하천 4대 하천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육아 공공지원 및 인프라 확대 ✓ 체육 집 앞 5분거리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재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 완성 ✓ 문화예술 인프라·프로그램 확대
활동해 경제수도 도시	친환경 생태 도시	100세 행복도시

영덕 울릉 청송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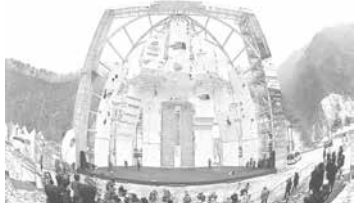
오도창 영양군수는 9일 오전 청기면사무소에서 개최되는 2024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교주)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9일 오전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방문해 2024년도 새해농업실용교육에 참석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울릉군,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울릉군이 오는 8일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5급 이하 승진(의결)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5급 군에 따르면 금번 승진 인사는 5급 승진(의결) 3명, 7급 6명, 8급 5명 등 총 14명이며, 전보 인사는 5급 3명, 6급 이하 48명이 전보되며, 9명이 신규로 임용됐다. 울릉군 관계자에 따르면 승진(의결)자는 승진후보자 순위와 업무추진 성과, 군정기여도, 연공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전보인사는 직무수행 능력, 보직경로, 전문분야 등을 주요 인사기준으로 삼았다. 정윤환 기자



청송 전국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개최

청송군은 '2024 노스페이스컵 청송 전국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를 지난 6일 청송군 내룡리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경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청송군·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리드 및 스피드부문 국내 선수 1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펼칠 예정이다. 7일에는 청송 월드컵경기장 뒤 얼음방벽을 등반하는 '2024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페스티벌' 대회를 함께 진행하여 경기 구조물이 아닌 방벽을 오르려 하는 클라이머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한다. 윤병문 기자



청송읍 소재 가은이앤씨 이웃돕기 성금 기부

청송군은 가은이앤씨에서 지난 8일 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가은이앤씨는 청송읍에 소재한 건축·토목설계용역회사이며 이웃사랑 나눔에 매년 동참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기부해주신 김성환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마음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병문 기자

영양군, 디딤씨앗통장 확대 지원

최대 10만원 18세 미만까지 지원

영양군은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과 연령을 확대해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보호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두 배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3만원을 적립하면 6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은 최대 10만원으로 18세 미만까지만 지원된다. 18세 이후 학자금과 주거비 마련,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 아동의 가입 연령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가정위탁, 시설인



소아동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 영양군은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에 관련 예산을 작년 35백만원에서 올해 145백만원으로 증액했으며 90여 명의 아동들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용방법 등을 상담 후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공평

한 기회와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으로 성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빛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권윤동 기자

청송군,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청송군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에 참여한다. 바이바이 플라스틱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촉구하는 캠페인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실천 수칙이 있다. 수칙은 장불대 장바구니 사용하기, 신석식품 주문할 땐 다회용 보냉백 사용하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포장에 많은 제품 사지 않기, 중고제품이나 재활용제품 사용하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치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포장 없는 리필 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등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청사 내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 군민들께서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의 지목을 받은 윤경희 군수는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중두 청송농협 조합장을 지목했다. 윤병문 기자

청송군,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청송군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의 발굴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월 90~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5억 한도)과 기술·경영 교육 및 상담(컨설팅), 농지은행 매입 비촉 농지 임대, 매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세대당 최대 5억원 한도(연리 1.5%, 5년거치 20년상환)의 융자금과 함께 각종 영농교육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송군청 농정과 농정기획팀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 경영에 뜻이 있는 유망한 인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청송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병문 기자

영양군, 2024년 학교 무상 우유급식 전면 시행

관내 초·중·고 13개 학교 958명 전학생 대상 영양군은 2024년부터 초·중·고 전학생에게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우유급식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중·고 모든 학생이며 지원 대상 규모는 13개 학교 958명이다. 이들 학생에게는 등교일과 휴일, 방학 기간을 포함한 연간 250일 안팎으로 백색우유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억 2700만원이 소요된다. 학교 우유 무상급식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자녀 부모 등)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낙농업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 사업이다. 기존 지원은 대상 학생의 신분 노출로 인한 계층

간 차별 및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번 영양군의 전학생 우유 무상급식 확대로 노출된 시간의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의 어려운 예산 상황에도 학생들의 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무상 우유급식 확대에 사회 공평성 제고와 어려운 낙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영양군은 군민 생활안정과 농축산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은 최근 학생 수 감소, 우유값 상승, 관내 납품이 가능한 우유업체 감소 등 여러 요인 때문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2025년 이후에는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권윤동 기자

영덕군, 농업인 재해보험료 75억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확대 영덕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갑작스러운 농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 보험료를 90%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올해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하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작업 사고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 보험,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 총 3가지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은 현재 가입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관내 전체 농가의 52%인 3,192개 농가가 가입해 2,256개 농가에 8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며, 농업인의 선호도와 필요성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영덕군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증가하는 기상 이변에 대비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영과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별 판매 기간에 맞춰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대구경북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영덕군,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목표액 넘어

취약계층 지원 위한 성금 및 물품 기탁 (주)지일, 교육발전기금 500만 원 기탁 영덕군이 희망2024 나눔캠페인의 성금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음에도 지역 주민들의 성금과 성품 기탁이 줄어 온정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다. 지난달 영혜정미소가 280만 원 상당의 백미 10kg 100포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달라며 영덕군에 기탁했다. 영덕콩치타드럼회는 120만 원, 영덕군약사회와 영덕군어용소방대연합회가 각각 100만 원, 영덕향교가 3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영덕군 주민자치센터 위원 일동이 175만 원, 영덕군 어린이집 연합회가 100만 원, 낙원재가노인복지센터와 100세재가

복지센터가 각각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4일에는 영덕버스가 300만 원, 영덕군 지역 건축사협회가 200만 원의 성금을 영덕군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 4일 ㈜지일 이운봉 대표이사가 김광열 영덕군수를 찾아 지역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교육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지일은 지난해 영덕군 목재문화체험관 내 목재놀이체험실을 시공한 인연으로 이번 성금 기탁에 참여하게 됐다. 목재놀이체험실은 초등학생 이하 유아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유아들은 물론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덕군 희망2024 나눔캠페인은 이번 달 말일까지 운영되며, 모금된 성금은 올 한 해 동안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조여은 기자

경산 영천 고령 성주



최기문 영천시장은 9일 오전 금호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금호읍 변영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눈다.



영천 산부인과 새해둥이 탄생

영천시는 지난5일 관내 분만산부인과(영천제이병원)를 방문해 갑진년 새해둥이 탄생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박선희 보건소장 및 김석원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며 축하했다.

갑진년 새해둥이는 지난 4일 동부동 거주 산모 양모(30) 씨와 남편 김모(32) 씨 부부의 첫째아로 2.9kg의 건강한 여아가 태어났다.

산모 양씨는 "우리 아이가 올해 영천시 새해둥이로 태어나 많은 축하를 받게 되어 기쁘다.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저출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새해둥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최은하기자



성주. 월항초 교내 영어캠프

월항초등학교는 8일-9일, 3-6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3 Fun! Fun! 월항 English Camp'를 운영했다.

영어권 문화를 테마로 원어민교사와 함께한 영어캠프에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곽상훈 월항초교장은 "교내 영어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더욱 증대되어 점차 성공적인 영어 학습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도재훈 기자

경산시, 7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교통카드기준 250원 인상, 어린이·청소년 요금 동결

경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요금 인상을 시행한다. 이는 2016년 12월 시내버스 요금 조정 후 7년 만이다.

경북 도내 타 시·군은 2021년 1월 요금 인상을 했으나, 경산시는 2년간 인상을 보류했었다.

이번 인상은 대구-경산-영천 광역 환승 할인제 협약에 따라 대구시의 시내버스 요금 조정으로 인해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오는 13일부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일반인 기준 시내버스 요금은 1250원에서 1500원으로 현금 이용 시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결했다.

경산시는 그동안 인건비, 유류비, 부대비용 등 대중교통 운영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 가계 부담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보류해 왔으나 코로나19와 자가용 운행 증가의 영향으로 승객이 감소하고 운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으로 원가 회수율 하락에 따른 적자 누적이 운송업체의 경영 위기로 이어져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

시는 요금 인상분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송업체의 원가절감을 위한 고강도 경영 합리화 노력과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2016년 12월 인상 이후 지난 7년 동안 요금 인상을 최대한 연기해 왔으나 대구-경산-영천 협약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임을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지원 대상을 2028년까지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대구-경북 대중교통 무료 환승이 가능한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및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운행하는 '광역철도' 도입,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현재 6대 운행 중인 '친환경(전기) 버스'를 올해 19대 추가 도입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절감

고령군,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종합대상 수상

부문 투자유치 은상 일자리 창출 우수상

고령군은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종합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노력을 인정받아 '종합대상'과 함께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주관했다.

2023년 최초로 시행된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종합대상'으로 전국 1위, '투자유치 부문'에서

은상,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절고 힘있는 고령군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고령군은 청년 일자리/창업지원 센터를 통해 지역 청년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투자유치, 월성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고령군은 지난해 경북도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최우수상, 투자유치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

영천인재양성원생 비룡승운 준비 끝

(飛龍乘雲)

영천시, 인재양성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재)영천시장학회는 지난 5일 '2024년 영천인재양성원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학부모 및 학생 100여 명이 참여 영천인재양성원의 연간 운영계획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2010년에 개원한 인재양성원은 올해로 15년

째로 2024년 대입 수시 결과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영남대·원광대·조선대 의예과 합격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12월 22일 치러진 선발시험에서 응시인원 227명 중 중·고등부 124명의 학생을 선발해 8일 개강한다.

2024년 영천인재양성원은 2023년에 이어 3년 연

시내버스 요금안내

※요금은 편리한 교통카드로!

구분	일반버스		
	일반 19세 이상	청소년 13~18세	어린이 6~12세
교통카드	1,500원	850원	400원
현금	1,700원	1,000원	500원

※교통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0배의 부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및 탄소중립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확보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예산 4.3억원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버스 정류장 냉·온열 의자 50개소(총 145개소) 추가 설치와 버스 도착 안내기, 공공와이파이, 디지털 안내 표지판, 미끄럼방지 안내판 설치 등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경운 기자

경산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호응 높아

경산시가 진행 중인 2024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회 계획인원 대비 평균 142% 이상 참석해 5월 기준 4회차 누적 교육생은 801명으로 집계돼 당초 계획인원 대비 133%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시작된 경산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4회 차까지 진행됐으며 오는 29일까지 총 13회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의 한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작목별 최신 연구 및 핵심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초에 운영된다.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신청으로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달리 특히 올해 교육은 지역 농업인들의 관심도와 교육수요를 반영해 복숭아 과정을 5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양봉 과정을 신규로 개설했다. 지난해와 같이 읍면 순회 교육도 함께 진행해 각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한해 물가 인상·농자재값 인상·이상기후·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환경에도 농촌을 지켜오신 농업인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고령군의회의는 군민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령을 밝히는 새로운 불빛 | 고령군의의회는 언제나 군민 여러분 곁에서 주민의 대변자와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uncil.goryeong.go.kr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예천

청년이 주도해 가는 '구미 새희망호' 닻 올린다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김천시 이자 지원 추진

김천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연 2.5% 이하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한다. 기본 2년으로 만 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와 공공기관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나 주거 급여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협약 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거친 후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김해문 과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예천 신도시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2곳 운영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중심상가 지역에 임시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해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조성된 주차장은 임시1 공영주차장(산합리 1419번지)이 38면, 임시2 공영주차장(산합리 1435번지)이 42면 규모로, 총 80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신도시 중심상가 지역은 총 21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공간 부족 및 불법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군은 토지소유자인 경북도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 주민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

한편 예천군은 도비 70억 원 포함 사업비 약 140억 원으로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310면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타워 건축 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욱 기자

지방시대 청년 주도 정책 초석 국책사업 유치 국비 17억 확보 청년거점 완성, 프로그램 확대

구미시가 갑진년에 청년이 주도하는 '구미 새희망호'에 닻을 올린다.

지난해는 청년이 주도하는 구미시대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시는 청년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발을 디뎠다. 이를 위해 'SE7EN-UP 청년정책'에 7개 과제(취업, 창업, 학업, 치열업, 빌드업, 왓츠업, 협업), 68개 사업으로 총 141억 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했다.

또 청년의 참여 범위를 시정 전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청년들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맺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위원 100%로 위촉하고 '청년정책참여단'을 27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확대해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2023년 중앙부처 공모사업 3건이 선정돼 국비 총 17억 원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지역경제과) '고향올라 공모사업',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일자리 고민과 함께 지역 청년 인프라 구축에 전념했다.

올해는 청년정책 인프라를 완성하고 일자리와 주거, 참여를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한다.

청년 주도 지방시대 정책체계 구축

시는 청년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구청년과를 신설했다.

청년과 청소년을 아우르던 기존의 조직구조와 달리 청년정책을 인구 관점에서 다루면서 특정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청년의 생애주기를 관장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SE7EN-UP 청년정책을 마련해 청년 삶의 영역을 '생활, 활동, 참여'의 3개 분야로 나눴다.

다시 취업, 창업, 학업, 치열업, 빌드업, 왓츠업, 협업 등 7개 과제로 세분화해 이에 대응하는 각 부서 청년사업을 총 68개 편성했다.

과제별 주요사업은 구미형 미래전략산업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스타트업지원, 구미시 전입학생 학업장려금,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복합공간 조성,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등이다.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는 지난해 5월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14명 전원을 청년층으로 확보했다.



'청년정책참여단'도 152명으로 대폭 확대해 참여 체계를 정비했다.

구미시 청년의 날 기획회의, 대표축제 모니터링, 청년공간 벤치마킹 활동 등 시정과 맞닿은 영역에서 청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했다.

새마을정신을 계승하려는 청년들도 한데 모았다. 지난 9월, 140명의 회원과 함께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를 발족해, 새마을운동의 재도약을 지원했다.

2023년 빈틈없는 청년정책 다양한 사업 청년 정책 중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구미형 미래전략산업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경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125개 기업과 188인의 청년을 매칭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할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스타트업 지원, 청년창업지원사업(예비), 청년창업지역정책 지원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창업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1:1 지도 등 2000여 명의 청년의 창업 활동을 지원했다.

학업을 마치지 않은 청년들은 전일학생 학업장려금으로 총 679명이 최대 20만 원을 지원했다.

청년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시행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총 1610명(전국 4위)을 뒷받침했다.

일자리 고민에 마음이 지친 청년들을 위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총 220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청년들의 활동 인프라도 강화해 지난해 11월 금오시장에 '청년상상마루'를 개소했다.

12명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경북 최초로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개관해 청년과 시민들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제1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 구미영 놀이터를 개최했으며, 청년 CEO와 금리단길 상인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동네상권 살리기도 일조했다. 2023 구미라면축제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문화로 청춘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023년은 청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해였다"며 "2024년은 구미시가 청년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책사업 유치, 국비 17억원 확보

시는 중앙정부 공모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3개 사업, 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8억 원을 투입해 구직단념 청년 160여 명의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구미역은 청년의 생애주기별 성장을 도모할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1층은 행정안전부 '고향올라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을 투입하며, '복합문화거점공간 Ground9 조성사업'을 진행해 청년활동지원센터, 구미맛이센터, 관광안내소 및 기념품상 등을 조성한다. 2층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4억 원을 투입해 결혼테마

북카페를 조성하고 스물웨딩 시설 대여, 생애주기 시작 안내 서비스 등 '결혼스토리 조성사업'이 진행된다.

2024년 청년거점 완성의 해

시는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방향을 맞춰 2024~2028 구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사진을 그린다.

국토교통부 사업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한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청년들을 구제하고, 정부사업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청년 미취업자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다.

대상연령도 34세를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청년 중위소득 60%에서 80%로 확대한다.

청년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산업 인재양성사업'과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 사업'으로 지역 대학과 함께 반도체,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참여 범위가 늘어 '구미영 에너지 프로젝트'로 청년이 과제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미영 에너지 프로젝트는 고향사랑기부금 1억 원으로 운영되며, 고향을 위한 기부금이 청년의 지역 활동을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광범위한 정책과 정보들을 구미청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미시민의 SNS 계정 '구미영@gumi_young'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년정책 홍보에 적극나설 계획이다. 이은진 기자

김천시, 中企 운전자금 524억 지원

설 자금 200억, 15일부터 접수

김천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52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설, 추석 명절 정기분과 4월, 10월 수시분으로 나뉘며 오는 설 명절 자금 200억 원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 건설, 무역,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 차액 지원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기업, 내 고장 TOP 기업과 이달의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

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gfund.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김천시 청 투자유치과에 방문·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운용계획 공고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광현 투자유치과장은 "최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서 시에서 대출금리 일부를 1년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경호 기자

예천박물관 소장 '입학도설' '맹자언해' 문화재 지정

예천박물관 소장유물인 '입학도설(入學圖說)'과 '맹자언해(孟子諺解)'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8일 예천군에 따르면 '입학도설'은 고려말 조선 초 문신이자 학자 권근(權近, 1352-1409)이 저술한 책으로 성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입문서이다.

'맹자언해'는 1590년 교정청(校正廳)에서 편찬·간행한 언해본(諺解本)으로 금속활자인 을해자 체경서자로 간행됐다.

한자음에 방점이 있고, 언해문의 '△'와 '○' 표기를 보여주는 국내 마지막 문헌이다. 두 문헌 모두 의성김씨 남악종가에서 기탁한 자료이다. 안병욱 기자

문경시, 유통축산분야 보조사업 공모

87개 사업 45억원 규모

문경시는 2024년도 유통축산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는 유통기반 조성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23억 원 증가한 총 253억 원의 유통축산분야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기조에 부합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 중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87개로 보조금 규모는 44억 500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축산인 및 단체는 오는 19일

까지 사업 계획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유통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 사업 분야는 농식품 가공산업 지원,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 확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이다.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지 확인과 평가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상기후, 소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상주 행복문화교실 수요조사

상주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위한 주민 역량강화교육 '행복문화교실'의 수요조사를 오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주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는 사별곡면 문화복지센터, 청사초동커뮤니티센터, 중동면 한마음건강센터, 청리면 복지회관, 공성면회관, 모동면복지회관, 모서면 누리마루커뮤니티센터, 화동면 복지센터, 화서면 화령시민센터, 화북

면 어울림건강센터, 은척면 꿈틀이발전소·행복체육센터 등이 있다. 행복문화교실은 완료지구 활성화 위해 추진되는 주민수요교육프로그램으로 라인댄스, 장구교실, 어반스케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춘길 상주시 농촌개발과장은 "프로그램의 다각화 및 다양화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구성하고, 단기적인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발적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안동 영주 봉화 의성



박남서 영주시장은 9일 오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시청강당에서 열리는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에 참석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9일 시청 주요 사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한다

영주 노부부, 1000만원 기탁

영주에서 익명의 노부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에 영주시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에 8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노부부가 방문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들 노부부는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봉투에 준비해온 현금 1000만 원을 내놓았다.

노부부가 이날 기탁한 1000만 원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노령수당과 자식들이 준 용돈을 조금씩 모은 돈이다.

익명의 노부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동안 받은 노령연금을 모았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근섭 가흥2동장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께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기부자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봉화군여성방범대, 법전면 기부

봉화군 법전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릴레이가 이어져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봉화군 여성자율방범대 지난 5일 법전면사무소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강영란 여성자율방범대 회장과 '봉화의 죽수니들' 유영란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행복금고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죽 지원 사업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강영란 회장은 "죽수니들의 영양죽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좋은 일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후원금을 기탁하게 됐으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전성기 기자

안동시,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활기

상권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책 추진

안동시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상권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상권활성화사업에 자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아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상권별 특화 요소 발굴을 통한 상권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자체 예산으로 상권별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기반 마련에 집중했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시장 및 상점가별 특화 요소를 개발하고 정착을 유도했다.

구시장은 풍물시장, 중앙문화의거리는 천생연분데이트길, 음식의 거리는 소소한상점거리, 남서상점가는 청년창업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지난해는 22억 원의 예산으로 18개의 세부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장별 축제를 개최해 각 시장에서 가진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북문시장 막걸리 축제, 중앙신시장 소(소주)·소

(소고기)·문(문어) 축제, 서부시장 안동간고등어 막걸리 축제, 풍산시장 전통주와 김장 축제 등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안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위한 전통시장 투어 운영도 큰 주목을 끌었다.

안동 원도심의 주요 구간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스토리 중심 테마별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통시장·관광지 연계 투어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도권 고객의 전통시장 유입으로 시장의 고객 다각화와 매출 증대를 도모했다.

그외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행복경영메니저 지원 사업, 영세 상인의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화재공제 지원사업' 등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

전통시장·상점가 환경개선과 소상공인 도약을 위한 시책 추진

안동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책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조기 소진에 따라 기존 10억 원이었던 출연금을 5억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8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 세바람 체인지업 사업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했다.



또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안동사랑상품권 10% 연중할인을 시행하고 발행 규모도 대폭 확대하여 12월 말 현재 판매액 950억 원을 달성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 편

의 제공을 위하여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북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침체한 북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모든 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김주수 의성군수, 새해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 4일 6개 주요 현안사업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2024년 새해를 도약하는 의성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날 의성종합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총사업비 351억원이 투입되는 의성종합체육관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가능한 규모로 3만7550㎡의 부지에 실내종합체육관(6738.54㎡)과 씨름훈련장(753.05㎡)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청년 복합문화센터(2개소), 금성면 온누리터, 드론비행 시범센터, 안계행복플랫폼을 차례로 방문하여 진

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시설 개관 후 주민들에게 바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관계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갑질년 새해 군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라며 "군민과의 약속을 신념과 원칙으로 올해도 행복한 의성 건설을 위해 주요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영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추가 지원... 농업인 자부담 10%로 경감

지속가능한 영주농업 위해 경영

영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영주농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늘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의 안정을 위해 호우, 태풍 및 우박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는 보험료 중 농업인 자부담 금액의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 15% 중 시비로 5%를 추가 지원해 국비 50%(국가 직접 지원), 지방비 40%, 농업인 자부담 10%로 농업인의 자부담을 낮춘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10억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재해보험 예산 총 55억 원의 시비를 확보했다.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방문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부담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농업정책보험 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해 우리 농업 현장은 봄철 저온 피해부터 시작해 여름 폭우와 태풍 가을 우박피해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컸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영주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안동시, 물가상승 대응 상시 가동키로...

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안동시는 물가상승 대응방안을 마련해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합동 점검 체제를 수립해 부당거래 행위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강화해 나간다.

시는 지난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했다.

매달 10여 명의 물가 모니터 요원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월 2회 직접 방문해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등 10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시청 누리집에 게재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역물가안정 대책 수립

에 반영했다.

분기별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단위 물가안정 및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폭 최소화를 꾀했다.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인 상·하수도료와 쓰레기봉투값을 동결하고, 명절에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안동시 4개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이는 등 물가 안정화를 도모했다.

이외 '착한가격업소'를 상반기에 3개소, 하반기에 2개소 신규 지정해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힘썼다.

현재 안동시 착한가격업소는 28개소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소규모 환경개선, 물품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누리집 및 반상화보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돼 가격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2024년부터는 물가상승 대응을 위한 대책 방안을 수립해 비상시 긴급·일시적 대응을 넘어 상시 대비 체계를 구축·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 마키지요금 등 소비자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 점검 체제를 수립하는 등 부당거래 행위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강화해 나간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운영 및 지방공공요금 관리, 지역상권의 인식개선 등을 통해 지역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배진태 봉화부군수, 읍면 초도순방

봉화군 신임 배진태 부군수가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개 읍면 초도순방을 실시한다.

지난 1일 취임한 배 부군수는 8일 봉성면을 시작으로 명호면, 재산면을 방문해 읍면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순방을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며 목격해 애쓰는 읍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민원민들에게 친절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9일은 석포면, 소천면, 춘양면, 법전면, 10일은 물아면, 봉화읍, 상운면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배진태 봉화부군수는 "원활한 일선 지방행정수행과 능동적으로 균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간 소통이 중요하다"며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건설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부군수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Opinion

칼럼

세계 문자 한글의 장래<2>

신 부 용

(사)전진사회만들기연대 운영이사



앞서 인류의 문자가 상형문자에서 시작해 자음문자(Alphabets)와 모음부 자음문자(Abugida), 알파벳으로 진화했음을 살펴봤습니다. 한자는 이런 궤도 밖에서 탈바꿈 없이 내용만 확장한 특이한 문자입니다.

세계의 각종 언어 연구기관인 에스놀로그(Ethnologue)에 따르면 한자까지 합쳐 세계에는 293개의 문자가 4,000여 언어에 쓰이고 있으며, 이밖에 3,000여 언어가 문자도 없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B.C. 2세기경 한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어떤 문자가 쓰였는지, 혹은 문자라는 것이 아예 없이 살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을 짚어 보겠습니다.

■ 우리나라 조상들의 고유 문자에 대한 갈등
우리 민족은 한자가 들어온 이후부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577년 전까지 1,500년 이상을 한자만으로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우리말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어서 둘 사이에는 마찰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특수 계층이 한자를 배워 의사표현할 수 있었다고 해도 우리말과 한자 표현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君子懷德小人懷土'라고 써서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한다'는 뜻은 표현할 수 있지만 막상 소리가 나어 들어오면 우리말 같지는 않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君子는 懷德하고 小人은 懷土하'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한글이 없었으므로 한자음을 빌어 '君子隱 懷德爲古 小人隱 懷土爲 彌'로 고쳐 썼습니다. 여기서 隱은 '은', 爲古는 '하고'로 읽었습니다. 爲를 '하'로 읽은 것은 이 글자의 훈(訓, 뜻)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런 글자를 '구결(口訣, 입诀)'이라 불렀습니다. 이후 입결을 발전시켜 이두와 향찰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자로 써야 했으므로 한자를 모르는 대다수 백성은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가림포'라는 문자가 있었다지만, '정말 있었다면 이런 고생을 했을까?'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훈민정음해례 서문에 나타난 세종의 심정
훈민정음해례 서문 첫머리에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通'이라 한 것은 '우리말은 중국말과 달리 한자로 옮길 수 없으므로 한자로는 통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러나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틀린 해석입니다. 중국과 우리말이 다르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필답으로 얼마든지 통합니다. 결국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하지 못해 백성이 겪는 불편을 풀어 주고자 한 것이 세종대왕의 목적이었으며, 이것이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이라 할 것입니다.

■ 세종대왕의 노심초사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는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건국 초기에 문란해진 도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즉위한 후 8년까지는 법률 정비에 힘썼고, 10년째 되는 해에는 효행록을 편찬해 백성들이 읽고 따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효행록이 한자로 기록돼 있어 읽지 못하는 백성이 많았습니다.

결국 범죄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자 백성들이 한자를 못 읽기 때문이라고 보고 세종 14년에는 효자, 충신, 열녀의 행실을 그림으로 표현한 삼강행실도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세종은 그래도 범죄가 크게 줄지 않는 것을 못내 안타가워했습니다. 결국 백성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법과 도덕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을 것입니다.

문제는 '성리학에 빠져 있는 사대주의 신하

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노골적으로 간섭하려 드는 중국의 위세를 어떻게 피해서 가느냐였을 것입니다. 요사이 중국 눈치를 보느라 국익을 외면하는 일부 정치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이를 모두 이겨냈습니다. 더 나아가 문자를 쉽게 배우지 못해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백성이 비단 조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린아이라도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투리 발음도 표기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훈민정음해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반포도 하기 전인 1443년 동국정운(東國正韻)이란 자전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연이어 명나라 운서(韻書)인 홍무정운(洪武正韻)에 훈민정음으로 음을 달아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이란 대작을 편찬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훈민정음의 사양은?
세종대왕이 이렇게 사실상의 세계 문자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사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작품을 보고 사후적 판단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양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발음의 표기 방식이 아니라 발음하는 방법을 보였어.

세계의 여러 문자는 국가별 혹은 지방별로 고유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고유의 글자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기존 글자를 좀 고치거나 특수 부호를 붙여 해결했습니다.

반면 훈민정음은 사람이 날숨을 조절해 가며 구강의 특정 부위를 자의로 진동시켜 원하는 발음을 내는 방식을 직관적이고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 줍니다.

다시 말해 발음과 글자를 1:1로 맞추느냐, 아니면 글자를 조합해 새로운 발음을 표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둘째, 글자마다 고유의 음가를 갖고, 글자를 조합하더라도 음가를 유지하라.

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본 글자 28자는 불변의 음가를 유지합니다.

이들을 조합해 어떤 발음을 표현하든 기본 글자의 고유 음가는 물리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 글자의 모양이 간단하고 구별이 뚜렷해야 한다.

훈민정음 자모는 모두 점(·)과 원과 직선으로 돼 있어 쓰기 쉽고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한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훈민정음과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르게 만들었는지 등입니다.

오늘의 정치

'민주 5선' 이상민, 붉은 넥타이 매고 국힘 품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며 "불굴의 정신력에서 이상민 의원과 공통점 가진 프랭클린 루스벨트 말"이라고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며 "이 의원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비유했다."

한 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مال 전체주의 주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시민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라며 "(이 의원이) 그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과 저 그리고 동료의원 지지자들이 모두 이슈에서 생각이 똑같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국힘 김예지 발언에 감동한 한동훈



김예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입당을 환영하며 "우리는 함께하면 길이 된다는 걸 믿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시작했다."

이 의원도 그 변화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함께 걸겠다. 걷는 데는 다양한 방법 있다. 저처럼 안내견과 함께 걷는 사람, 지팡이와 함께 걷는 사람, 휠체어로 걷는 사람(이 있다)"며 "보는 방법도 다양하다. 저처럼 손이나 귀로 보는 사람, 눈으로 보는 사람. 다양한 방법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우리는 다양한 분들을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존중하는 정당"이라며 "많은 것이 변화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건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어려운 동료 시민을 위해 어깨를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일부러 총선을 위해 어그로 끌지 않겠다. 어그로 끌면서 의회 폭격하지 않겠다"며 "사실 그럴 만한 의석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젊고 어렵고 외로운 분들을 받아들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외연확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이 의원을 향해 "다선 의원이라 선배 의원이신 데 저는 정당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선배가 됐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위원의 발언이 끝난 뒤 "이렇게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감동하는 일은 후진 일인데 좋은 말씀에 감동했다"며 "고맙다"고 전했다.

건강 상식 지켜달라는 목(目)소리... 알아두면 좋을 눈 건강 상식

눈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1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 때 간단한 눈 검사가 이뤄지지만, 40대가 넘어가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저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도 실명 위험까지 있는 심각한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눈 건강 상식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의 도움으로 살펴보자.

황반변성은 눈 조직 중에서 황반에 발생하는 것으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이다. 당뇨병에 의해 생긴 말초 순환 장애로 망막에 생긴 합병증인 당뇨병망막병증은 혈당 조절을 잘하면 발생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신문 맛 이 달 라 지 면 신 문 내 용 도 달 리 쳐 야 합 니 다 대구 광역 일 보 는 독 자 의 가 습 까 지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

www.dgy.co.kr

등록번호 (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 영 속 편집인 김 성 용 부 사장 조 여 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 표 257-0000 부 사 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국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DAEGU |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꿈나무야성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100만원 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 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협찬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시상내역**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일반부 - 신페리오
 - 남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 여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 남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여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남·여 3위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남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여 트로피·드라이버
 - 니어리스트 남·여 트로피·퍼터
 - 이글상, 최다 버디, 파, 보기 더블파 각 상품 지급

참가규모 88팀(학생부 포함 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0일(입금자 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 장소 : 경주더케이 호텔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참가신청입금 후 환불 불)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수등록 확인 관계로 9시 30분까지 골프장 도착